

세 제시문은 모두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가)와 (나), (다)는 인공적 요소에 대해 상반적인 견해를 보인다. (가)는 아름다움이란 인공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가)에 따르면 자신들의 미에 대한 견해에 맞게 매화를 변형시키는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들이며,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전한 매화가 아름답다는 것이다. 반면, (나)와 (다)는 아름다움은 인공적 요소와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에 따르면 무량수전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무량수전은 건축물 사이의 역학성과 조화를 보여준다. 또한 근처의 터전은 여러 층 단으로 닦여있고 석탑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특정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다)에 따르면 여성들의 우아함 즉, 아름다움은 행동을 할 때 인위적 계산과 연기를 할 지라도 그것을 타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할때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와 (다)도 자연과 인공의 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른 견해를 가진다. (나)는 인공적 요소가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에서 무량수전의 인공적 요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해진 것들이다. 석축의 각도는 뒤에 있는 자연 즉, 능선의 각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반면, (다)는 자연과의 조화없이 인공적 요소만을 추구할 뿐이다. (다)를 보면 아름다움을 위해 자연스러움을 가장하여 연기할 뿐 자연스러움에 이르지 못하는 인위만을 수단으로 삼고있다.

한편 허위성과 대상을 기준으로 (가), (나)와 (다)는 차이를 보인다. (가), (나)는 아름다움의 달성을 위해 허위적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다)는 허위적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가), (나)는 아름다움을 위해 자연의 순리를 따르거나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추구할 뿐 착시적 요소나 허위적 요소를 추구하지 않는다. 반면 (다)는 아름다움을 달성하기 위해선 타인을 속이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 (나)는 자연과 사물을 대상으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다)는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다소 차별적 견해를 드러낸다. (가), (나)는 매화와 무량수전을 통해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반면 (다)는 인간을 대상으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함을 차별적으로 이야기 한다. (1,149자)